

## 팩트 체크와 셀프 체크

### 이슬람 포비아의 윤리학적 성찰

Fact-check and Self-check : Islam Phobia and Ethics of Reformation

---

저자  
(Authors) 문시영  
Si Young Moon

출처  
(Source)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2016.09, 45-68(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TORCHTRINITY Center for Islamic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79486>

APA Style 문시영 (2016). 팩트 체크와 셀프 체크.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45-68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20.67.255.\*\*\*  
2021/02/09 (Accessed)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팩트 체크’와 ‘셀프 체크’: 이슬람 포비아의 윤리학적 성찰<sup>1</sup>

문시영\*

## I. 서론

## II. 이슬람 포비아의 기독교윤리학적 성찰과 과제

1. 팩트 체크: 이슬람 포비아-안티 기독교
2. 셀프 체크: 종교개혁 윤리의 재발견
3. 복음의 증인됨과 평화를 위한 과제

## III. 결론

\* 남서울대학교 교수

1 ‘Islamophobia’(이슬라포비아)를 편의상 ‘이슬람 포비아’로 표기했다. 언론에서도 사용되는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덧붙여서, 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주제가 선교학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글이 ‘남의 집 기웃거리기’의 어설피름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솔직히, 이슬람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필자로서는 쉽지 않은 주제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윤리학자의 혼수’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 I. 서론

최근, 특정방송의 코너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팩트 체크’(fact check)는 특정 프로그램이 고유명사화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슬람 포비아’(Islam phobia 혹은 Islamophobia)에 특별히 중요한 요소이다. 사실, 이슬람 포비아는 ‘팩트 체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포비아가 팩트 없는 이야기로부터 생겨난 두려움이라면,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팩트 체크가 쉽지 않은 경우이다. 이슬람 포비아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슬람과 관련한 어떤 팩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해졌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멀리 있는’ 탓이다. 게다가, 매스컴이 전하는 이슬람 관련 테러와 폭력의 잔영(殘影)은 팩트보다 더 큰 두려움을 남겨주기도 한다. 이슬람 포비아와 관련된 팩트 체크는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듯싶다.

이 글은 이슬람 포비아의 ‘팩트 체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복음적 신앙을 위한 자성으로서의 ‘셀프 체크’(self-check)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이 복음적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유럽침공과 관련된 ‘투르크에 대한 두려움’을 루터가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물론,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이슬람 포비아를 대하는 한국의 기독교를 일깨우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포비아’를 둘러싼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복음적 실천의 과제를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II. ‘난민’의 다양한 의미와 개념의 진화 추세

### 1. 팩트 체크: 이슬람 포비아-안티 기독교

이슬람 포비아를 둘러싼 해석과 담론은 간단하지 않다. ‘팩트 체크’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에 관한 ‘팩트 체크’가 용이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전문영역에 위임하고 그들의 정보를 신뢰하는 것이 최선일 듯싶다. 이 글에서 말하는 ‘팩트 체크’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슬람 포비아에 관한 한국적 정황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은 이슬람 포비아라는 현상을 ‘현실주의’에 기초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이슬람 포비아’는 과장되어서도 안 되고 축소시켜서도 안 되는 현실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현실주의는 특히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기독교현실주의’(Christian realism)의 응용을 뜻한다.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 보다 우선시 할 수 있지만 집단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이기심이 나타난다고 역설했다.<sup>2</sup> 니버는 감상주의를 배격하면서 사회 및 정치적 요소들이 자아중심성과 힘(혹은 권력, power)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sup>3</sup> 현실이란 마치 넘실거리는 파도와도 같으며, 부정할 수 없는 실체이다. 유행어 그대로, ‘레알’이다. 이슬람 포비아가 팩트 체크를 요구받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슬람 포비아 자체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았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현실로서의 이슬람 포비아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한국시민 일반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로서의 이슬람 포비아이다. 최근 IS가 배후로 지목된 일련의 테러들이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2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8.

3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기독교사회윤리』, 29집(2014), 10.

슬람에 대한 두려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신앙인 여부를 떠나 글로벌 이슈로서의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시민적 반응인 셈이다. 이 부분에서 요구되는 것은 'IS=이슬람?'에 관한 팩트 체크일 듯싶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기독교에 나타난 태도'로서의 이슬람 포비아이다. 여기에 요청되는 팩트 체크는 이슬람선교 경험자 혹은 이슬람 선교전문가의 몫일 듯싶다. 사실, 이슬람사원이 웅장하게 건립된 것을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방면에서 이슬람이 밀고 들어온다고 느끼는 두려움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이슬람권에서 들려오는 선교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근심스러운 소식들에 대해서 선교전문가들에 의한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교회에 유포된 이야기들은 팩트에 대한 해석에서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교회에 알려진 이야기 중에는 유럽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으며 그 자리를 이슬람이 대신하고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만일 그것 또한 팩트라고 한다면, 경각심과 선교적 관심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싶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장된 이야기라는 반응이 만만치 않다.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이슬람과 관련된 팩트를 체크하기 어려운 입장에서는 다소간 혼란스럽기도 하다. 한껏 부풀려서 이슬람 포비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와는 반대로, 이슬람 포비아를 과장된 것이라고 무시하는 태도 역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이슬람 포비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찾는 현실주의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일 듯싶다.

이 글에서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포비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독교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는 안티적 비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뒤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비롯하여, 보수화된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에 대한 포비아는 기독교를 문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곤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특이한 정황들이 작용한 탓도 있다. '김선일 참

수사건'(2004.6),<sup>4</sup> ‘샘물교회 피랍사건'(2007.7),<sup>5</sup>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단 참변'(2014.2)<sup>6</sup> 등은 이슬람 포비아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독교를 문제 삼게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가뜩이나 전 세계가 이슬람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판에, 한국의 기독교가 그들을 자극함으로써 안타까움을 자초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말하자면, 이슬람에 대한 ‘포비아’와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경제적 관점에서 이슬람 포비아를 문제 삼는 경우에서도 기독교를 문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할랄 식품단지’의 무산을 두고 기독교를 향해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쉽게 볼 수 있다. K팝에 열광하는 그들을 이슬람 포비아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그렇다.<sup>7</sup>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무슬림 결사반대’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황금알’에 비유되는 중동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정책의 혼선을 야기할 뿐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기독교가 막연한 이슬람 포비아를 드러낸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sup>8</sup> 이슬람 시장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근거 없는 이슬람 포비아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만약 북한의 잇단 핵 도발을 예로 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과 남한을 통틀어 ‘코리아 포비아’ 정서를 갖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기도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글로벌 시대의 공존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sup>9</sup> 이슬람

4 “김선일 참수사건으로 본 정부 테러 대응력은?,” 〈채널A〉(2016.6.19.일자)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0619>.

5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종합보고서 발간,” 〈노컷뉴스〉(2013.12.3.일자)  
\*<http://www.nocutnews.co.kr/news/1143136>

6 “진천 중앙교회 60주년 기념 ‘성지 순례’하다...,” 〈KBS〉(2014.2.17.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810625>

7 “K팝에 열광하는 그들에게 이슬람 포비아 색안경이러니,” 〈머니투데이〉 보도(2015.5.11.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1011472137594>

8 “막연한 이슬람 포비아 지양해야,” 〈아시아 투데이〉(2016.4.25.일자)  
\*<http://www.asiatoday.co.kr/view.=20160424010011340>

9 “글로벌 시대 공존의 윤리,” 〈한국일보〉백영경교수 칼럼(2016.3.20.일자)  
\*<http://www.hankookilbo.com/v/828a1617a85243c7ba97a0920acb5effb>.

을 부정하고 무슬림을 악마화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글로벌 시대에, 차이를 안고 함께하다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 단초는 할랄 식품단지를 기독교가 반대했다는 이유였다.

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혼동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아랍=이슬람’이라는 왜곡된 인식구도를 깨트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sup>10</sup> 아랍은 문화적인 개념이고, 중동은 지정학적 개념, 이슬람은 종교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일부다처제, 가부장, 부계 중심, 남아선호, 명예살인, 여성 억압 등 편견과 오해로 증폭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선교사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동의하기도 한다. 이슬람에 대한 획일화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이슬람은 하나의 색깔로 규정할 수 없으며, 무슬림도 테러나 폭력에 대해 분노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슬람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기독교내에서 ‘팩트 체크’ 없이 유통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무슬림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접촉할 기회조차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인 듯싶다.

다소 다른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태도가 미국 보수기독교의 그것을 답습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 백인들의 ‘이슬람 포비아’가 기독교 주류층의 우려와 경계의 산물이라는 관점이 그것이다.<sup>12</sup> 미국의 반(反)이슬람 정서는 미국 내 무슬림 인구 급증에 따른 백인 기독교 주류층의 우려와 경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말하고 있다. 나아가, 보수 기독교가 ‘이슬람 vs 기독교’의 구도를 노리는 IS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방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IS의 전략에 기독교가 말려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10 “아랍과 이슬람은 하늘과 땅 차이…왜곡된 인식 구도 깨트려야,” 〈CNB저널〉이희수교수 강연보도 (2016.5.3.일자)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22989>

11 “이슬람에 대한 획일화된 시각 벗어나야,” 〈미주중앙일보〉김동문선교사 인터뷰(2016.4.11.일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73264](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173264)

12 “무슬림 출산율 높아…美백인들 이슬람 포비아,” 〈동아일보〉(2015.12.14.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51214/75343688/1>

이러한 관점들을 심화시켜, 한국기독교가 반(反)이슬람을 포함하는 차별과 배제를 정치세력화의 모토로 삼아 극우 정치에 편승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있다.<sup>13</sup> 동성에 반대, 이슬람 반대를 구호로 내세운 기독교 정당의 약진을 두고 한국기독교가 극단적으로 보수화되어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주장 끝에, ‘신의 이름으로’ 정치세력화를 꾀하든, 종교적 언어로 비판 의견을 정죄하든, 합리와 상식을 잃은 정치는 가장 위험한 비수가 되고 만다는 훈수까지 두고 있다.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지만, 기독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기독교를 이념의 틀에 묶어버리려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일 듯싶다.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복음적 해법의 모색을 애초부터 차단시켜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이슬람 포비아 문제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복음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이슈이다.

이슬람 포비아는 기독교가 이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의 문제일 듯싶다. 동시에 그것은 ‘현실’이기도 하다. 이슬람 포비아는 과장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예를 들어, 이슬람 포비아를 안티 기독교로 연결짓는 분위기 자체는 한국의 기독교가 자성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기독교를 이슬람 포비아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세워서도 곤란하다. 문제는 한국의 기독교가 ‘이슬람 포비아-안티 기독교’의 맥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기독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정으로부터 집단행동을 한다고 주장해도, 시민적 반응은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원인을 한국의 기독교 스스로가 제공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자성적 접근으로서의 셀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13 “차별과 배제, 극우 정치의 두 날개”, 〈한겨레신문〉(2016.4.22.일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931.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0931.html)



## 2. 셀프 체크: 종교개혁 윤리의 재발견

이슬람 포비아가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에서,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더불어서, 이슬람 포비아에 휘둘리는 한국의 기독교가 어떠한 현실에 놓여있는가에 대한 팩트 체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과연, ‘이슬람 포비아-안티 기독교’로 표현되는 당혹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독교는 겸허한 ‘셀프 체크’(self-check)를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말기는 식’의 자의적인 성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슬람 포비아와 관련하여, 과연 복음적 정체성에 충실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관해 참고가 될 만한 단초가 종교개혁시기에 루터와 유럽사회에 나타났던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견된다. 16~17세기 종교개혁과 오스만 제국의 유럽 침공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투르크의 유럽침공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서 중요한 단면이었다.<sup>14</sup> 오스만 제국으로서는 종교개혁으로 초래된 신·구교의 분열을 틈타 유럽을 침공할 좋은 기회였다. 개신교도에게도 오스만 제국의 유럽 침공은 가톨릭 세력의 박해로부터 벗어날 호재였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학자들, 특히 루터와 칼뱅은 가톨릭교회가 ‘이슬람만큼’ 또는 ‘이슬람보다’ 부패하거나 타락한 종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 정치가들은 현실정치라는 관점에서 오스만 제국과의 동맹을 통해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sup>15</sup> 실제로, 루터와 칼뱅은 이슬람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였으나 정치가들은 오스

14 Gregory J. Miller, "Luther on the Turks and Islam," 「루터연구」17집(2003), 165.

15 김정명,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연구," 「중동연구」34-2집(2015), 89.

만 제국과의 동맹을 통해 반가톨릭동맹을 추진하고 오스만 제국의 종교적 관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다.<sup>16</sup>

특히,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관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시의 독일인들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 투르크의 침공을 ‘합스부르크 왕가 vs. 오스만 제국’ 구도 즉 두 정치체제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 vs. 적 그리스도(anti-Christ) 이슬람’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17</sup> 흥미롭게도, 루터는 이슬람 교리 연구에 관심을했다고 전해진다. 그 이유는 당시 개신교도들이 자칫 이슬람으로 대거 개종할지 모른다는 우려, 그리고 가톨릭교회 비판의 준거로서 이슬람을 삼는 것이 시대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뜻에서, 루터가 이슬람을 비판한 것은 이슬람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황과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무너트리고 나아가 종교개혁 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중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sup>18</sup>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두려움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제국에 의해 점령된 이후, 이슬람에 대한 공포는 유럽인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투르크에 대한 공포’가 형성된다. 오스만 제국의 이러한 팽창은 루터를 내부의 적인 로마 가톨릭과 외부의 적인 이슬람세력과의 이중전선에 내몰았다.<sup>19</sup> 루터는 투르크와의 전쟁을 기독교세계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는 불의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생각한 셈이다.<sup>20</sup> 만일 투르크 족이 악마의 도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저지시키지 않으시는가? 루터가 보기에, 투르크의 침공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기독교를 향하여 징벌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다. 루터가 이 싸움을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으로 생각한 이유가

16 Ibid., 63.

17 Gregory J. Miller, “Luther on the Turks and Islam,” 159.

18 김정명,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연구,” 74.

19 이성덕, “종교개혁 시대 이슬람의 팽창과 루터의 입장,”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4-1집(2002), 140.

20 Thomas Kaufmann/ 공준은 역, 『루터』(대한기독교서회, 2015), 110.

바로 여기에 있다. 루터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투르크가 물러난 것은 기도와 회개에 대한 응답이다.<sup>21</sup>

루터에게서 좀 더 주목할 것이 있다. 그는 투르크와 싸우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내부에서 영적 전쟁에 패한다면 외부와의 육적 전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투르크와의 전쟁을 회피한 것이라기보다 교황의 독재에 항거해야 한다는 점, 즉 내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루터는 바티칸이 투르크 전쟁을 위한 사면권을 판매함으로써 독일의 재산을 잠식시키고 있었으며, 십자군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죄 용서를 위한 공로로 간주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sup>22</sup> 십자군 전쟁에 반대한 이유는 투르크의 신, 즉 사탄과 싸울 때, 군대보다는 기도와 회개를 무기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군대가 나서는 세상 전쟁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다.<sup>23</sup>

루터는 1529년 이후 투르크를 종말론적인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빈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사탄이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후 투르크가 철수하기는 했지만, 루터는 종말의 날까지는 이러한 위협이 상존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회개와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 때, 루터는 투르크의 공격에 영적 본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무함마드로 대체시키려 한다.<sup>24</sup> 투르크가 비엔나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실재하며 심각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서 각별히 유의할 것이 있다. 이슬람에 대한 루터의 관점이 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르크에 대한 그의 태도에는 종말론적 두려움의 요소와 함께 복음적 종교개혁을 위한 관심이 담겨 있었다. 예를 들

21 Gregory J. Miller, "Luther on the Turks and Islam," 162.

22 이성덕, "종교개혁 시대 이슬람의 팽창과 루터의 입장," 145.

23 Thomas Kaufmann, 『루터』, 110.

24 Gregory J. Miller, "Luther on the Turks and Islam," 162.

어, 루터는 가톨릭과 이슬람을 율법적인 종교로 비판했다. 이슬람은 율법종교(혹은 공로종교 religion of works-righteousness)로서, 단지 허위일 뿐 아니라 이단이며 악마의 숭배자라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없다는 사실에 루터는 강력한 경계심을 표시한다.<sup>25</sup> 루터는 몇몇 중세원전들과 라틴어 번역본에 기초하여 이슬람의 경전 코란을 연구했으며 코란의 출판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루터는 코란이 적그리스도적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코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두 본성 즉 참 신과 참 사람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의 교리 또한 반대하기 때문이다.<sup>26</sup>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슬람에 루터의 태도에 그들을 향한 경계심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도 담을 수 있어 보인다.

루터는 이슬람에 대한 태도에서만 아니라 유대교에 대해서, 특별히 당시의 로마 가톨릭에 대해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이슬람교도보다 더 사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탄과 맘몬에 종노릇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았다.<sup>27</sup> 복음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루터가 투르크와의 싸움이 이슬람의 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유대교와 가톨릭보다는 쉬운 상대로 간주하여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sup>28</sup>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복음에 대한 바른 헌신이 없다면 회개와 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루터가 투르크의 유럽침공을 두고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여겼듯이, 복음적 자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25 Gregory J. Miller, "Luther on the Turks and Islam," 160.

26 Thomas Kaufmann, 『루터』, 110.

27 이성덕, "종교개혁 시대 이슬람의 팽창과 루터의 입장," 156.

28 Ibid., 157.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다만 내가 나를 칭찬할 것이 있다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sup>29)</sup>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루터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복음적 인식을 근간으로 삼아 심지어 투르크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복음의 기준에서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말하자면, 복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나 문제이다. 그것이 이슬람이든 유대교이든 혹은 로마가톨릭이든, 복음 없는 율법적 종교는 모두가 옳지 않다는 뜻이다. 그것은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요소일 수 있을 듯싶다. 루터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가 종교개혁을 위한 관심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 3. 복음의 증인됨과 평화를 위한 과제

따지고 보면, 이슬람 포비아는 급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어느덧 하나의 현실로 자리를 잡았다.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 현실로서의 이슬람 포비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관심할 때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기독교가 가진 태도로서의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냉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반응은 썰렁하다 못해 차갑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가 이슬람을 차별과 배제의 틀에 넣어 단죄한다는 식으로 단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를 따라 이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의 정립이 시급하다. 솔직히, 이슬람 포비아는 기독교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지만 선교지향적 종교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점에서는 딱히 기독교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 물론, 정치세력화를 위한 자원으로 이슬람 포비아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기성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29) Thomas Kaufmann, 『루터』, 20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싶다. 루터가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유럽침공을 보면서 두 가지 전투의 이미지, 즉 내적 전투와 외적 전투의 이미지를 말했던 것의 응용이다. 그 하나는 내적 과제이다. 복음의 회복을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 포비아와 거기에서 나오는 반대와 차별의 오류를 피할 가장 큰 원동력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적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외적 과제로서, 평화를 위한 모색이다. 소프트 타겟에 대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평화'를 매개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동모색이 가능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1) 복음의 증인됨을 위한 자성

내적 자성의 과제는 루터의 윤리를 재해석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윤리가 차별과 억압의 닫힌 도덕이 아닌, 인격적 열망에 의한 열린 도덕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열린 도덕에 관한 논의는 베르그송(Henri Bergson)의 도움을 받아 정리할 수 있겠다.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Two sources of morality and religion*)에서 베르그송은 두려움에 의한 종교와 도덕을 닫힌 것이라고 규정했다.<sup>30</sup> 의무와 강압에 기초한 닫힌 도덕과 닫힌 종교는 지극히 생물학적인 것에 해당한다. 베르그송이 사랑과 열망에 기초한 열린 도덕과 열린 종교는 생명의 도약을 추구한 것이라고 말했던 부분은 큰 의미가 있다. 베르그송의 논지에 따르면, 닫힌 사회는 닫힌 도덕과 닫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열린 사회란 열린 도덕과 열린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닫힌 도덕과 닫힌 종교가 사회유지를 위해 발현되는 원시적이고 생물학적인 본능의 소산이라면, 열린 도덕과 열린 종교는 인간의 생존조건을 넘어서 도약하는 생명적 노력의 표현이다.<sup>31</sup>

30 Henri Bergson, trans. by R. Ashley Audra and Cloudesley Brereton, *The Two Sources of Morality and Relig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9-101.

31 박종원, "생명이론에 근거한 윤리학: 베르그송의 닫힌 도덕과 열린 도덕에 관한 고찰," 『대동철학』 25집(2004), 14.

열렸다는 표현에 오해할 필요는 없다. 열린 도덕과 열린 종교는 다원주의적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덕과 종교가 그 본질에 있어서 두려움이 아닌 인격적 자발성과 열망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를 문제삼으라는 뜻이 담겨있다. 베르그송이 역사상 단 한번, 열린 종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사이의 역동성에서 구현되었다고 말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질문해야 할 것은 열렸다는 표현의 다원주의의 연관성이 아니다. 과연, 한국의 기독교는 열린 종교로서 열린 도덕을 구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한 내적 자성의 단계에서,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중요한 통찰을 준다. 하우어워스를 이 글의 맥락과 연관 지어 응용하면, 이렇게 된다. 기독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안티 기독교 현상이 아니다. 복음의 상실 이 진정한 위기이다.

하우어워스가 요더(John H. Yoder)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강력하게 말한 ‘콘스탄틴적 결탁’의 비판은 기독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현실정치에 진입하려는 시도들을 문제 삼는다.<sup>32</sup> 복음의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복음에 대한 자성과 자정을 간과한 채 현실정치가 주는 자유를 복음이 주는 자유와 동일시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뜻이다. 사실, 한국의 기독교가 차별과 배제의 담론을 유포하고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지 않은가? 복음적 성찰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박해받는 소수였을 때의 신앙적 열정이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깊은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

이것을 ‘그리스도인 됨’(being a Christian),<sup>33</sup>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Christian as Christian)의 문제로 풀이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기독교에 필요한 것은 이슬람 포비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복음의 ‘증인됨’(being witness)을 위한 각성과 실천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민사회에 도덕적 모범을 보여

32 ‘콘스탄틴 결탁’의 문제를 포함한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북코리아, 2013).

33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y Ethic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183.

주는 것 이상의 의의를 지닌다. 시민적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빗겨 나가려는 시도가 아니다. 사실 그것만 이루어도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현주소는 곤혹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본질적 정체성의 문제로부터 두려움을 가져야 마땅하다. ‘이슬람 포비아-안티 기독교’의 정황에서 더욱 그렇다.

참고로, 하우어워스에게서 복음의 증인됨은 그의 윤리개념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근대적 의미의 윤리학이 독자적인 분과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이전의 맥락을 생각해 보자. 칸트의 계몽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윤리’라는 분과구분이 없었던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과 행위의 문제를 규정했을까? 좁혀서 말한다면, ‘기독교윤리’라는 이름의 근대적 학문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과 행위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규정했을까? 윤리라는 분과구분이 없었던 초대교회는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주목했고 예배의 성경읽기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제자도’에 주목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예수의 증인됨이 중요했고, 박해가 다가왔을 때 ‘순교’는 증인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sup>34</sup>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는 기독교윤리의 개혁 즉 초대교회의 윤리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증인됨’(social witness)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윤리로 제시한다.<sup>35</sup>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정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칸트의 정언명법에 따라 행위 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주(主)를 닮아가기를 배우는 길’에 있다고 단언한다.<sup>36</sup>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성찰에서 베르그송과 하우어워스를 동원하는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재해석하려는 취지이다. 루터가 오스만 투르크의

34 Stanley Hauerwas,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41.

35 Ibid., 7.

36 Ibid., 253.



유럽침공을 보면서 내적 자성과 복음의 회복을 강조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투르크에 대한 두려움에 이끌리기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회개를 통한 복음의 회복을 강조했던 루터의 관심을 회복하지는 취지이다. 오늘의 ‘이슬람 포비아-안티 기독교’의 정황에서 필요한 것 역시 내적 자성과 복음의 회복이다. 이슬람 포비아를 정치세력화의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지탄을 받기보다 한국의 기독교가 먼저 복음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슬람에 대한 선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 (2) 평화를 위한 공동의 모색

외적 과제는 평화의 모색을 위한 적극적 관심이다. 이슬람 포비아를 넘어 평화를 위한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sup>37</sup> 현실적으로, 지구촌은 테러라고 하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야말로 선교적 접근의 전제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여전히, ‘IS’의 잔혹상은 ‘이슬람 포비아’(Islam phobia)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이슬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sup>38</sup> 이슬람에 붙은 폭력과 테러의 꼬리표가 떼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참고할 것이 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전쟁과 (폭력은) 원시사회로 역행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유기체적 사회일수록 전쟁의 본능을 드러낸다. 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의무감과 사회적 규율을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드러난 정치체계가 과두정치이다. 과두정치의 사회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으로 전승된다고 주장하는 전쟁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sup>39</sup> 어느 종교이든, 전쟁과 폭력을 종교적

37 문시영, “폭력의 악순환에 갇힌 현대의 종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8(2015), 32.

38 예를 들어,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겠다. 아얀 히르시 알리, 정상민 공저/ 이정민 역, 『나는 왜 이슬람 개혁을 말하는가』(책담: 2016).

39 Henri Bergson, *The Two Sources of Morality and Religion*, 298.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닫힌 종교이자 원시적인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점에서, 우리는 폭력을 종교로 삼는 일부의 무리들에게 심각한 우려와 경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 곳곳에서 소프트 타겟에 대한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정황에서, 테러를 일삼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다. 다만, 두려움에 묶여있기보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공동의 모색이 절실하다. 그것이야말로 테러를 숭배하는 ‘닫힌 종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열린 종교’를 보여주는 지름길이며 복음의 참된 가치를 구현하는 토대일 것이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모색하는 길이 멀고도 험난하지만, ‘평화 만들기’(peace-making)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루터의 태도에 대한 해석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루터는 과연, 이슬람과의 공존을 추구했을까? 만일 루터의 태도가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를 적과의 공존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문제라고 말한 것이라면,<sup>40</sup> 평화를 위한 공동모색의 길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그동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화와 폭력의 수단이 손쉽게 동원되었다.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이 멀고도 험난해 보여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sup>41</sup> 그것은 평화를 향한 선교적 관심으로부터 해석되어야 할 듯싶다.

이 부분에서 종교개혁자 칼뱅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칼뱅의 이슬람과 오스만 제국에 대한 평가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당대 종교개혁 사상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칼뱅 역시 이슬람과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는 가톨릭교회와 더불어 이슬람과 유대교 모두 참된 기

40 Gregory J. Miller, "Luther on the Turks and Islam," 165.

41 황선엽, "이슬람과 기독교,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사상」, 688호(2016.4월호), 18.

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사악한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이슬람과 가톨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와 모순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다. 우선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 가톨릭의 독신제도는 모두 여성의 기쁨을 고려하지 않는 비인도적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슬람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그리고 가톨릭이 교황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보다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양자 모두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며 배교를 조장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sup>42</sup>

칼뱅은 설교를 통해 유대교화 이슬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루었다. 칼뱅은 이슬람을 적그리스도인 동시에 선교대상으로 삼았다. 예정의 교리가 소수의 구원을 지향하는 편협한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뱅에게 유대인은 ‘이단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칼뱅은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보전하고 계승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고 평가했다.<sup>43</sup>

동시에 유대인에 대해, 칼뱅은 이단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육적인 자녀에 머물러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으로 보인다. 칼뱅은 ‘진리의 오류자’ 목록에 교황절대주의 가톨릭,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을 포함시키고 성경을 기준으로 이슬람의 오류를 지적한다. 그는 무함마드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에 포함시켰다. 다만, 칼뱅이 일방적인 혐오를 말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적극적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의무가 기독교인에게 주어졌다고 보았다.<sup>44</sup> 이렇게 보면, 칼뱅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비판의 대상인 동시에 선교의

42 안신, “칼빈의 유대교와 이슬람에 대한 이해,” 『인문과학연구논총』 38집(2014), 246-249.

43 Ibid., 240.

44 Ibid., 249.

대상이다. 루터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와중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소간 다른 분위기였겠지만, 칼뱅에게는 그의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투르크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종교개혁을 위한 관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유라비아’ 즉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은 순진한(naive) 기대이기 쉬운 정황임을 생각할 때, 칼뱅의 통찰은 중요하다. 칼뱅의 주장은 복음을 기준으로 이슬람을 직시하고 그들에게 제기되는 복음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포비아를 교묘하게 역이용하여 악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테러를 숭배하는, IS라는 ‘현실’(reality) 앞에서 기독교는 선교적 관심을 명분으로 감상주의적 접근에 기울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는 한국의 기독교에 시사해 주는 바 크다.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바른 방향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여기에서, 이 글이 이슬람 포비아를 무시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될 현실의 문제이자 한국 기독교의 이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했던 것과 연관 지어 보자. 칼뱅이 이슬람을 비판하면서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칼뱅이 이슬람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던 내용은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적 신앙을 촉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듯싶다. 물론, 그들의 종교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칼뱅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경제가 지닌 막강한 세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복음을 결여한 이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슬람 포비아-안티 기독교’의 한국적 정황에서, 배제와 차별의 관점에서 이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복음적 동기를 가지고 이슬람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www.kci.go.kr

### III. 결론

팩트 체크와 셀프 체크를 연계시키려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선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인 동시에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자기진단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분명, 이슬람 포비아와 관련하여, 팩트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인 것은 아니다. 팩트 체크와 더불어 기독교의 자기성찰로서의 셀프 체크가 절실하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오늘의 현실과 연관 짓는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한국적 맥락에서 이슬람 포비아는 기독교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포비아-안티 기독교’의 당혹스러움을 극복할 해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의 관점에서 셀프 체크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루터를 통하여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두려움을 복음의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복음적 정체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는 당위를 각성할 수 있었다. 또한 칼뱅을 통하여, 이슬람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슬람에 복음이 없음을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하는 선교적 접근의 절실함이 그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윤리를 재발견하는 노력에 힘써야 할 듯싶다. 이슬람 포비아를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이용하기보다 복음적 자성과 평화를 위한 모색에 관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솔직히, 한국교회의 형편은 녹록하지 않다. 한국의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변명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교회성장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설상가상으로 이슬람의 도전 앞에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이러한 때, 종교개혁 윤리의 재발견이 한국의 기독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통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복음

적 정체성에 충실한 기독교로 성숙해야 하며 선교적 관심으로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www.kci.go.kr

● 참고문헌

\*인용된 인터넷 기사는 제외하였음.

- 김정명, “종교개혁 시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연구,” 「중동연구」34-2집(2015): 59-92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윤리: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기독교사회윤리 29집(2014): 7-37
- 문시영, “폭력의 악순환에 갇힌 현대의 종교,”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8(2015): 11-36
- 박종원, “생명이론에 근거한 윤리학: 베르그손의 닫힌 도덕과 열린 도덕에 관한 고찰,” 「대동철학」25집(2004): 147-165
- 안 신, “칼빈의 유대교와 이슬람에 대한 이해,” 「인문과학연구논총」38집(2014): 233-251
- 이성덕, “종교개혁 시대 이슬람의 팽창과 루터의 입장,” 「한국기독교신학논총」24-1집(2002): 139-162
- 황선엽, “이슬람과 기독교,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기독교사상」688호(2016.4월호): 16-18
- Bergson, Henri, trans. by R. Ashley Audra and Cloudesley Brereton, *The Two Sources of Morality and Relig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7.
- Hauerwas, Stanley,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y Ethic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5.
- Kaufmann, Thomas, / 공준은 역, 『루터』(대한기독교서회, 2015), 110.
-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0.
- Miller, Gregory J., “Luther on the Turks and Islam,” 「루터연구」17집(2003), 165.

## ● ABSTRACT

## ‘Fact-check’ and ‘Self-check’ : Islam Phobia and Ethics of Reformation

Si Young Moon

Some says that the best way to overcome ‘Islam phobia’ is the ‘fact-check.’ This paper suggests another factor, ‘self-check’ of Christians.’ It seems that ‘Islam phobia in Korea’ has some uniqueness coupled with Christianity. Christians have phobia to Islam’s challenge, and citizens blames on Christians’ Islam phobia because of some moral fails. In other words, it appears as ‘Islam phobia-Anti Christianity.’ It needs to be studied on the solution for this perplexity. That’s the point of self-check of Christians. In this meaning, this paper delves into the meaning of reformation for moral horizon of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M. Luther and J. Calvin.

Luther’s experiences of facing with Turks and Islam during 16-17th centuries to be good cases for coping with the Islam phobia of our times. Luther’s basic in this issue is the Gospel. He required double tasks of Christians as the inner and outer struggles. Inner struggle means the repentance of Christians, outer warfare is to defend to the ‘Turks’ invasion. Luther’s insight of biblical self-check for overcoming the phobia of ‘Turks and Islam would be a meaningful guide for Christians in Korea.

In addition to Luther’s perspective, also the insight of J. Calvin has important meaning. Calvin taught double attitudes of pointing out the error of Islam and evangelizing the Muslim. Calvin’s insight would be an useful guide for Christians who have some severe phobia to Islam. Based on these insights, there are two tasks of being a Christian and corresponding peace-making. In short, ‘fact-check’(to Islam phobia) and ‘self-check’(for biblical faith)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attitudes to Islam phobia of Christians in Korea.

www.kci.go.kr



- Key-words: Islam phobia, Christian ethics, Fact-check, Self-check, Biblical faith, M. Luther, J. Calvin.
- 키워드 : 이슬람 포비아, 기독교 윤리, 팩트체크, 셀프체크, 성서적 믿음, 마틴 루터, 칼빈

www.kci.go

논문투고일 : 2016. 8. 23  
논문심사일 : 2016. 9. 10  
게재확정일 : 2016. 9. 17